

토론토 강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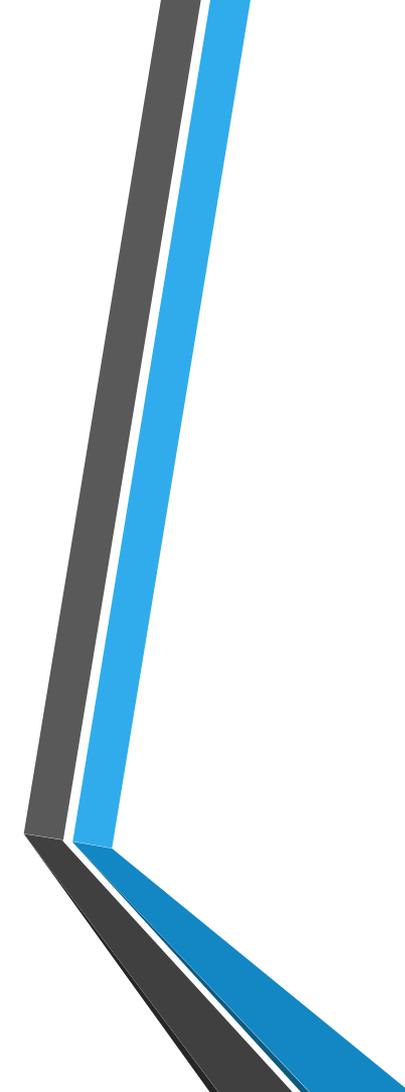


www.kanglimchurch.com



2월 속회





토론토 강림교회 2월 속회

하나님 나라의 표적
(누가복음 11:27-36)

2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주 '하나님 나라의 표적', 2주 '하나님 나라와 안식', 3주 '하나님 나라의 지혜', 4주 '하나님 나라의 주인').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그 영원한 나라의 법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삶의 목적과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1.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교훈하십니다(27-28절).

1) 한 여인이 예수님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입니까(27절)?

*'당신을 뱀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하였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여인의 축복은 예수님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영광되시기에 그의 어머니까지도 그 영광이 미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이다. 이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했던 고백과 비슷한 내용이다(눅 1:41-42).

또한 이 말은 마리아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은혜를 고백한 말이기도 하다(눅 1:48).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2)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28절)?

*오히려 하나님을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질책이 아니다. 마리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높여 마땅하다. 마리아가 얻은 특별한 은혜, 말하자면 신앙 체험은 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그 은혜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은 은혜요,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특별히 만져주시기를 사모한다. 어떤 특별한 신앙 체험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특별한 일임을 다시 상기시키신다.

나눔1

우리는 특별한 신앙 체험을 바라거나, 혹은 그런 체험이 있는 이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십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특별한 은혜로 여깁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
교훈하십니다(29-32절).

1)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9절)?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세대의 특징이 될까? 사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또 다른 표적을 구했다(눅 11:16).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을 요구한 것이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줄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끊임없이 불평하며,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것을 요구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세대의 특징이다.

2)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징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2절)?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표적이란 결국 표시, 즉 표지판과 같다.

그 표지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나의 표적이란, 결국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 사건이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그때에 이방 땅 니스웨는 회개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는 말씀을 이미 받고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대한 표적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실 표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 증명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라는 요구다.

나눔2

악한 사람들은 성공과 번영을 위한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회개를 위한 표적을 주십니다. 자기 부인과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까?

내 삶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나눠봅시다.

3.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33-36절).

1)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33절)?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어두운 곳에서는 등불이 있어야 밝히 보게 된다.
그런데 단지 등불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등불이 있지만, 움 속이나 말 아래 둔다면 마치
등불이 없는 것과 같은 어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등불은 적절한 곳에 밝히 켜져 있어야
한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밝히는 등불이다(시 119:105). 그런데 그 등불이 제대로 작용하려면 우리 삶의 가장 적절한 곳에 밝히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며, 실천해야만 우리 삶이 말씀으로 밝아진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2) 우리 몸의 등불은
어디입니까(34절)? **눈**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등불이 켜져 있다 한들 우리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담아 우리 삶으로
옮겨주는 영적인 시각이야말로 우리 몸의
등불이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우리의 눈이 등불을 보지 못하고,
늘 감겨 있다면 우리 몸도 어두워진다.
우리가 영혼의 눈을 떠서 늘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3) 우리가 우리 속을 살필 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35절)?

*우리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아야
한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우리는 우리 삶의 어두움을 잘 관찰해야 한다.
죄가 드리우는 곳, 하나님이 부재한 삶의 자리
말이다. 이렇게 죄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삶을 돌리는 작업을 우리는
'회개'라고 한다.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결국 우리가 우리 삶에 빛이 없음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영적 시야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늘 볼 수 있는 적절한 자리에 위치해 있지 않음도 깨달을 수 있다.

나눔3

눈이 밝으면 삶도 빛나지만, 눈이 어두우면 삶도 어둡습니다.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삶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그 관심을 '빛이신 주님'(요 8:12)과 '등불인 말씀'(시 119:105)을 향해 돌린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까?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

마음 모아, 함께 기도

삶 _ 이 땅에서의 성공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공동체 _ 악한 세대 속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참된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료제공: 매일성경)